

# Himalaya Coffee House

CORNER STONE

##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인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평안하지 않을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신지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조국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기도로 이겨가고 있는 교회를 보면 감사가 넘쳐나옵니다.

이곳 인도 상황도 만만치 않는데 신분격차도 심하고 생활 환경도 너무 다양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3월 중순 이후부터 5월 하순인 지금 까지 강제 봉쇄령을 이어가고 있어서 저희 가족도 집에서 강제 봉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누적 확진자는 17만 여명 이고 확진자는 8만 6천명, 완치자는 8만2천명, 사

망자는 5천명 정도(5월30일 현재)로 많은 인구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지만 통계가 정확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자기집이 없이 길거리에서 노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구가 1억 명이 넘다 보니 여전히 진정보다는 확산 쪽에 더 무게가 실려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학교는 문을 닫았고 최소한의 상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아서 새로운 사역으로 시작한 카페 사업과 기존에 커피회사는 문을 닫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다른 사역지들도 방문이 어렵고 다만 구제를 위한 방문만 허용되어서 아주 극빈층이 사는 마을에 한해 구제 물품을 나누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헤린, 유진도 집에서 격리



코로나 봉쇄기간 중 가족모두 구약 일독을 마치고 가족사진

하고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16일경에 아이들학교는 학기말시험도중 갑자기 문을 닫았고, 얼마전부터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봉쇄령 중에 있다 보니 비자가 만료된 분들이나 다른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차량은 대절하여 이틀정도 걸려 델리에서 특별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정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켜보며 최대한 안전하게 인도에서 지내는 것으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권 11, 발행번호 1  
회보 발행 일자  
2020년 5월 30일

### 우리를 위해 아뢰 주세요~

- 가족모두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
- 코로나 19 인도 봉쇄령이 바이러스를 잘 처리하고 끝날 수 있도록
- 강제 봉쇄령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 하는데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 코너스톤 회사와 카페 단테가 강제 봉쇄령을 잘 견디고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 헤린, 유진이가 봉쇄령 기간 중에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잘 보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코로나 봉쇄기간 중 극빈자들에게 사역에서 준비한 물품을 나누어 주고 있다